

LNG 동북아 허브 터미널 구축 여수 묘도에 4월 착공 연기되나

대규모 LNG 탱크·항만 조성... 中·日과 LNG 무역 거점 추진
산업부, 가스공사와 경쟁 우려... 서류 보완 요구로 막판 진통

‘전남 LNG 동북아 허브 터미널 구축’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서류 보완 요청으로 인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천혜의 여건을 지닌 여수 묘도에 대규모 LNG 탱크, 항만 등을 조성해 중국, 일본 등과의 LNG 무역 거점으로 삼겠다는 이 사업은 연안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기여, 대기질 개선 등의 효과로 인해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항후 LNG 시장을 두고 민간기업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입장, 인허가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는 4월 착공식이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가스배관망 이용 완화,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보완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수주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등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가 보다 전환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주)한양이 지난해 말 산업부에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공사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지난 9일 산업부에서 서류 보완을 조치했다. 터미널 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의 송출 가능 물량을 (주)한양은 연간 100만㎥으로 추정했으나 한국가스공사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60만㎥만 가능하다는 한국가스공사의 답변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산업부는 터미널이용계약(Terminal Use Agreement, TUA)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민간기업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배관망 공동이용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항후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면서 LNG 직도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업계와 전남도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의 취지에 맞게 관련 대책 수립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양 측은 다수의 발전회사 및 해외 LNG사업과 TUA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산업부가 이에 대해서도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 인천, 삼척, 통영, 제주 등 5곳에서, 민간

기업이 보령, 광양 등 2곳에서 각각 LNG 터미널을 운영중이다. (주)한양은 여수 묘도 준설토매립장 약 87만4000㎡에 1단계로 1조3000억원을 투자해 LNG 탱크 20만kl(킬로리터) 4기, 기화 설비, 항만 등을 오는 2023년 9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1단계에 이어 2026년까지 2조7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20만kl(킬로리터) 9기, 연료전지발전소 등을 설치, 여수 묘도를 국내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등과의 수출까지 하는 LNG 동북아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주)한양 관계자는 “조만간 보완 서류를 제출할 예정으로 산업부에서 이달 내에만 공사계획승인을 내준다면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부는 물론 기획재정부까지 찾아가 협조를 당부하는 등 신속한 사업 착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재부, 산업부 등에는 가스배관망 분석 시 연간 송출량을 최대치(High case)를 기준으로 할 것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천연가스반출입업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처사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새로운 일자리 및 연안 산업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는 더 없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안철수 “실용적 중도정당 만들겠다”

1년 4개월 만에 귀국 정계복귀 ... 오늘 광주 5·18 묘역 참배
바른미래·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과 3지대 신당 창당 주목



귀국 큰 절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9일 오후 귀국,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혀 4·15 총선 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안 전 의원은 20일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어서 호남 민심에 어떤 정치적 구상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년 4개월만에 귀국한 안 전 의원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정운영의 폭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정부가 국가의 모든 걸 결정하고 국민이 따라가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정부가 수레를 앞에서 끌고 가는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큰 절을 한 안 전 의원은 “무엇보다 큰 기대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바른미래당이 현 상황에 처한 것 역시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저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답한 뒤 “저는 간절하게 대한민국이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고, 다음 국회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많이 (국회에) 진입하게 하는 게 제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해 패배한 뒤 정계 일선에서 물러난 안 전 의원은 같은 해 9월 독일로 떠났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방문학자로 체류해왔다. 안 전 의원이 4·15 총선을 80여일 앞둔 가운데 정치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4·15 총선 구도에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안 전 의원이 일단 바른미래당에 돌아가 재창당 수준으로 당을 리모델링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안 전 의원이 중도·개혁 실용주의 기치로 독자적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안 전 의원이 20일 광주를 찾는다라는 점에서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과 함께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서지 않는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5·18 40주년...서울서도 대규모 행사 열린다

서울시, 5월 15~18일 개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도 대규모 기념행사가 열린다. 19일 5·18 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5월 15-18일 서울광장 일대에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서울기념행사 운영 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는 5·18 40주년을 계기로 민주화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5·18민주화운동 세계화의 초

석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총 8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번 행사는 크게 ▲민주화운동 기념문화행사 ▲서울의 봄 문화제 ▲시민과 함께하는 5·18 40주년 기념음악회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5월 15-16일 열리는 민주화운동 기념문화 행사는 국내외 민주·인권 인사의 초청 강연이 진행되는 국제 컨퍼런스와 전국대회, 문화공연 시민참여 행사로 이뤄진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함께하는 '민주인 권평화 도시 선언' 퍼포먼스도 열린다.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시민오케스트라 '광주의 빛' 단원 518명(오월 합창

단 375명, 오월 오케스트라 140명, 지휘, 성악 솔로 등 3명)이 함께하는 5·18 기념 음악회가 펼쳐진다. 17-18일 서울광장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의 봄 문화제'는 1970-1980년대 대중가요를 현대에 맞게 편곡한 라이브 콘서트와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악과 현대무용의 융합 퍼포먼스로 꾸려진다. 행사 기간 노들섬·서울기록원 일대에서도 민주화 정신을 주제로 한 작품 전시와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남 21명의 '인나푸르나' 그 순간 ▶6면
타계 서예가 학정 이돈홍 작품세계 ▶16면
윤석민, KIA 팬들과 특별한 만남 ▶20면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시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